

(2) 강연회와 토론회

각 청년단체는 회원 및 일반 대중의 수양과 훈련, 계몽을 위해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20년대 초의 토론회·강연회는 주로 유학생을 연사로 동원하였기 때문에 여름방학 중인 7~8월에 집중 개최되었다. 아직 대부분의 청년단체가 활동가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1920년대 초반 각 청년단체에서 개최한 토론회·강연회의 연제와 연사는 다음과 같다.

1920년

신창의법청년회 문학부 주최 특별강연회(8. 5~7. 신창예배당) : ‘나는 누구’(김신도 : 여), ‘인생의 존재한 의의’(이마대 : 여), ‘두뇌의 전쟁’(이윤영), 청중은 매일 500~600명

1921년

- ① 순천청년회 창립 1주년 기념 현상토론회(7. 31. 임시회관 연자루) : 논제 ‘인생의 목적이 이기냐 이타냐’
- ② 순천청년회 강연회 : ‘조선문예의 배경’(8. 3. 경성불교청년회장 도진호)
- ③ 순천기독교면려청년회 순회전도강연단의 보성 강연(8. 16. 보성청년회관) : ‘신인합일(神人合一)’(김양수), ‘활소망(活所望)’(은이갑), ‘기독교의 개념’(옥선진), 청중 400명

1922년

- ① 순천청년회 강연회(연자루) : ‘생이나 사냐’(7. 8. 도진호), 청중 500여 명
- ② 순천청년회 강연회(7. 15.) : ‘사람이여’(한태선), 청중 400여 명
- ③ 순천청년회 강연회(7. 22. 연자루) : ‘오인(吾人)의 각성’(일본유학생 김성인), 청중 500여 명

1923년

- ① 순천청년회 강연회(7. 23. 연자루) : '엇지하여야 사람다운 생활이냐'(동경유학생 옥선진), 청중 400여 명
- ② 순천청년회 강연회(8. 7. 연자루) : '우리가 부형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김종두), '귀안(歸雁)'(오재성), '생의 사회적 고찰'(박영진), 청중 600여 명
- ③ 순천유학생대회 주최 토론회(8. 10. 순천공립보교) : '조선의 급무는 실업호(實業乎)아 교육호(教育乎)야'(연사 : 김량준 · 박태식 · 최중윤 · 김형락 · 윤봉식 · 정중하), 청중 500여 명
- ④ 순천유학생대회 강연회(8. 20.) : '우리 희망이 무엇'(박성두), '사람다운 사람 됩시다'(윤행중), '나의 자신'(노용호)
- ⑤ 순천유학생대회 주최 현상토론회(8. 23.) : '위인이 되려면 지(智)나 덕(德)이나', 출연자 학생 10명
- ⑥ 순천청년회 주최 남녀학생 현상토론회(8. 24.) : '인류생활에 여자의 공이 많으나 남자의 공이 많으나', 청중 500여 명
- ⑦ 순천기독교면려청년회 강연회(8. 29. 순천공립보교) : 조정환(9년 전 도미하여 철학과 문학 연구)의 세계적인 미국 세력을 소개하는 강연, 청중 600여 명
- ⑧ 순천기독교면려청년회 소작료 4할문제 토론회(12. 8. 순천매산학교 강당) : 소작료 4할의 가부를 토론

연제로 미루어볼 때 초기의 강연·토론은 현실사회와 얼마간 동떨어진 추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토론회·강연회 개최횟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제도 현실문제와 관련이 높아졌다. 특히 1923년 8월 조선의 급무는 실업인가 교육인가를 놓고 벌어진 순천유학생대회의 토론회, 1923년 12월 면려청년회의 소작료 4할문제 토론회 등이 그러하였다.